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해외현장연구 개인 에세이

제목 : 중장년층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 사례를 중심으로



| 과 목 명: 해외현장연구

| 담당교수 : 이병호 교수님

| 학과 / 학번 : 사회학과 201923825

| 이름 : 오예원

목차

I. 서론(3)

- 1) 들어가며
- 2) 연구 진행 과정
- 3) 연구 방법

II. 본론(7)

- 1)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분석
- 2)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점

III. 결론(17)

- I. 연구 소감
- II. 마무리

IV. 부록(20)

- I. 인터뷰 일정 사진

I. 서론

1. 들어가며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청년들의 취업난 혹은 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있어 노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자리 문제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통해, 되려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가벼운 물음은 연구 주제가 되어 내가 일본을 방문하고 문제를 조사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주었다.

처음 연구 주제를 설정하던 날이 기억난다. 각자 다른 학과와 다른 관심 분야를 지닌 네 명이 모여 어떤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로 약 2 주를 소요했던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그 머리 아프고 지끈지끈했던 모든 과정 역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위안했었다.

'취업 빙하기 세대'라는 단어 역시 매우 낯설게 다가올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일본에는 버블 경제 이후, 신규 채용의 잇다른 붓새로 한 세대가 취업난을 겪어 중장년이 될 때까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된 세대가 존재한다. 이를 '취업 빙하기 세대' 혹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이 사회 문제가 한국에도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취업 빙하기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들과 방향성을 모색한다면 한국 사회의 중장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및 청년 세대 취업난의 사회 경제적 위험성을 제고하고 해결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들을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으로 해외현장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벼운 탐방을 넘어, 한 명의 연구자로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에 임했다. 팀장이라는 책임감이 보다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와 동시에 단단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더 진지하게 연구에 임할 수 있어 좋았다.

물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주제가 계속해서 변화했고 연구 보고서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병호 교수님의 자세한 지도 하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무사히 일본에 다녀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2. 연구 진행 과정

일자	내용
3 월 1-2 주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설정
3 월 3-4 주	연구 주제 선정 및 자료 조사 (선행 연구)
4 월 1-2 주	선행 연구 및 인터뷰 대상 물색
4 월 3-4 주	인터뷰 컨택 및 인터뷰지 초안 작성
5 월 1 주	인터뷰지 수정 및 관련 선행 연구 공부
5 월 2 주	국내 전문가 인터뷰 진행
5 월 3 주	인터뷰 내용 정리 및 요약 국외 인터뷰 준비
5 월 4 주	국외 전문가 인터뷰지 작성 및 수정
6 월 1 주	연구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수정
6 월 2 주	해외현장탐방 준비 및 중간 보고서 작성 제출
6 월 3-4 주	해외 현장 연구 및 귀국 후 인터뷰 내용 정리
7 월 1 주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내 인터뷰 일정>

5/12	아주대학교경제학과김정호교수님(노동경제학)
5/16	아주대학교행정학과박성빈교수님(한/일관계)
5/24	인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이정우교수님
5/19	상상우리대표님 (중장년층일자리센터- 퇴직자들을위한취/창업지원제공)
5/22	더스쿠프사회부김정덕기자님

<국외 인터뷰 일정>

6/13	츄우 키 (노동정책연구소 부주임 연구원) ZOOM 인터뷰
6/22	심승규 교수님(노동경제학전문)인터뷰
6/23	1) 노동정책연구소 소장님 인터뷰 (노사관계및노사커뮤니케이션전문) 2)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 부장님 인터뷰(사회보장및저임금문제전문) 3) KOTRA 동경무역관 미팅
6/25	호세이대학교 학부생 인터뷰
6/26	1) 릿쿄대학교 시마무라 아키요 교수님 인터뷰(연금/고령소득보장전문) 2)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방문견학

연구 진행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우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만큼의 성과와 보상이 있어 더욱 기쁘고 즐거웠다.

일본 현장 연구를 갈 때에는 전문가들 인터뷰 제의가 성공할 시, 슬랙스와 운동화 혹은 구두를 신는 등의 단정한 복장과 함께 작은 소정의 선물을 들고가야 한다는 당연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예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일본 전문가 분들에게는 일본어로 정중하게 높임말을 사용하여 컨택 이메일을 보낸다면 회신 확률과 수락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3. 연구 방법

연구방식은 국내에서 학술 논문과 신문 기사를 통한 문헌 조사와 노동 문제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한 선행 연구를 전제로 하며 이후, 일본 도쿄 현지에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 노동 기관 방문 등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참고 문헌과 관련 기사 및 논문들은 대략 한 50-60개 이상은 살펴본 것 같다. 일본어가 능통한 2인은 일본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남은 2인은 한국의 논문과 관련 기사 자료를 정리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은 모두 팀장이 설정한 마감 기한까지 원재료가 아닌 2차 가공한 요약본으로 단독방에 보내는 것을 규칙으로 하였다.

이에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 간 국내에서 각종 문헌 조사와 중장년층 노동문제 및 비정규직 문제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마친 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일정은 위에 첨부한 표(2번 문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 본론

1)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분석

아래의 글은 인터뷰에서 전사한 자료이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느낀 바들을 기술하고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생긴 이유는 취업빙하기 세대 때 기업이 중고령층을 해고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취업 빙하기를 겪은 사람들이 중고령층이 됐을 때 정사원이 된 사람들은 지켜줄 수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지켜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신고용이라는 제도를 경제학 연구자들은 일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력 성장을 막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 일본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면도 존재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 06/23 노동정책 연구소 소장님 -

어찌보면 한국에서 부러워하는 종신고용의 형태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한국과 다른 차이를 느낀 것은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악화가 될 때, 한국은 보통 기존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유능한 소수의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일본은 해고가 아닌 고용 자체를 봉쇄하는 접근법을 취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또 이것이 한 세대의 '취업 냉각'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양면성을 보게 되었다.

“ 근데 현재 일본 정책은 지방에 사람을 되돌리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강하게 해서 지방에서 일하고 아이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사람을 되돌리는 정책을 지역소생이나 교정사회라고 부르고 현재 일본 정부는 이것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한가지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고독사하고 있는 사람을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

- 06/23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 부장님 -

이 인터뷰를 차용한 것은 중장년 세대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소에 가장 신선한 해결 방법 혹은 대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려 '질'적인 측면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을 중장년 세대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정책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집중한 것이 흥미로웠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경쟁에서 취업 빙하기 세대는 시작되었다. 즉,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가와 기업은 개인에게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취업 빙하기 세대는 생계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선택에는 자발성이 따르지만 이들의 선택에는 비자발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보아, 정확히는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이런 중장년층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과열과 밀집 현상을 해소하면 된다는 것이 지역 소생의 목적이다. 도심부에 집중된 안정적 일자리와 인구를 지방으로 재배치하여 지역을 소생시키고 자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2) 현장 방문을 통해 느낀점

연구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로 일본 사회는 매우 질서있다고 느꼈다. 길가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무단횡단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없다는 점 등이 인상 깊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체감하고 오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바라보고 느낀 일본은 확실히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고 있었다.

연구 보고서에서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일본은 현재 오히려 구인난이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많은, 한국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다만 일본은 90%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청년들의 중소기업 지원률을 고려하자면 사실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청년 세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그렇다면 청년이 취직이 안됐을 시, 구제책이나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는지, 왜 그들은 구인난에도 취업이

안되는건가요?”라고 질문을 했다. 이때 연구 소장님은 “취업을 하지 못한 그 개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부분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거라고 거꾸로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취업난을 겪는 한국 사회에 발언을 대입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일자리가 많기에 가능한 발언이겠구나 싶어서 연구가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도 생생하고 인상깊게 다가왔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외현장연구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수강을 함에 있어 후회없이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III. 결론

1) 연구 소감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 능력 안에서 최고는 아닐 수 있을지언정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일본어에 능통한 팀원 두 분의 능력과 국내 조사 및 인터뷰 컨택을 위한 다른 팀원의 노력이 더해져 후회없는 해외 현장 연구가 된 것 같다.

주제 선정부터 연구 진행과 발표 그리고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학부생임에도 한 명의 연구자로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한 학기 동안 큰 애정과 나름의 공을 들여 진행한 연구에 보고서 작성 마무리까지 담당할 수 있어서 힘들지만 오히려 좋았다.

2) 마무리

해외현장연구는 진짜 관심이 있는 연구 문제로부터 출발하면 매우 흥미롭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인 것 같다. 연구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만큼 학문에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다. 하나의 연구 주제는 주제에 관한 단일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하는 국가의 문화, 특성 등 여러 종합적인 것을 배운다는 것에 있어서 진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번 해외현장연구 수업은 나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부터 보고서 작성과 모든 활동에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법, 언어에 미숙한 채로 해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 관심있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활동까지 가장 많은 것을 졸업 전에 얻어갈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연구 방향성 설정을 도와주시고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보고서를 잘 작성하도록 잘 지도해주신 이병호 교수님과, 현장에서 지도 및 통솔로 노력해주신 한상곤 교수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고마운 팀원들과 현장에 방문하는데 비행기부터 숙소까지 신경써주시고 노력해주신 수업의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IV. 부록

1. 릿쿄대학교 시마무라 아키요 교수님 인터뷰(연금/고령소득보장전문)



2. 코트라 동경 무역관 미팅



3. 노동정책연구소 소장님 인터뷰 (노사 관계 및 노사 커뮤니케이션 전문)



4.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 부장님 인터뷰 (사회 보장 및 저임금 문제 전문)

